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379.39 (-20.47)	709.71 (-7.18)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484 (+0.030)	1238.70 (+3.40)

【뉴스】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재정사업 선정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유리기판에 목숨 건다” 반도체 패키징 새역사

SKC, 美 조지아 기판공장 건설

플라스틱 대신 글라스 기판 적용
패키징 산업 ‘게임 체인저’ 기대

애플리케이션, 조지아 공장 현장 공개
세계 첫 글라스기판 상업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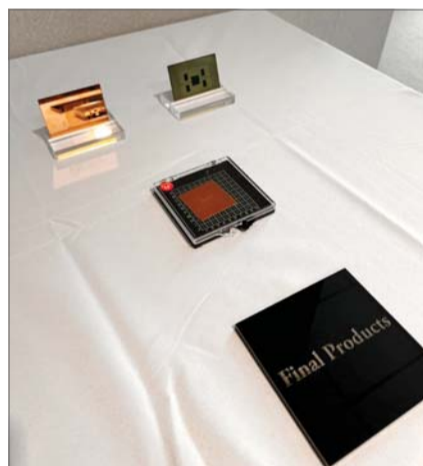
CES2023 현장에서 만난 박대표는 글라스 기판을 선보인 데에 고성능 컴퓨팅(HPC) 시장 확대에 따른 패키징 고도화를 배경으로 들면서 반도체 산업이 맞닥뜨린 한계를 극복하려면 패키징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5나노 칩 개발에 7000억원이 드는데 성능 개선 효과는 20%에 불과하다. 이는 투자 대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반도체 시장의 한계. 이에 이종접합 패키징으로 앞서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며 “칩 자체의 성능이 두 배가 되면 가격도 똑같이 두 배로 상승한다. 이같은 이유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칩을 고성능화 시키는데 목숨 거는 것.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 따른 패키징이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패키징이란 여러 개의 반도체를 하나의 기판에 실장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CPU, GPU, 메모리 등 반도체들이 여러 MLCC와 함께 기판에 하나의 부품으로 패키징 된다. 지금까지 널리 쓰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은 고르지 못한 표면 때문에 미세화를 거듭하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용으로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표면이 매끈한 실리콘을 중간 기판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외국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4면에 계속)

/조지아(미국)=최빛나 기자
vina@metroseoul.co.kr



글라스 기판 실물 /최빛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尹 ‘세일즈외교’ 결실... 오일머니 37조 책판

역대 UAE 순방 최대 성과
양국간 미래협력 강화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300억불(약 37조원) 투자 유치를 확정하고, 총 4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이 모든 정상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대통령실은 “역대 UAE 순방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16일(현지시간) UAE에 마련된 프레스 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UAE가 대(對)한국 300억불 투자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UAE 투자와 한국의 첨단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과의 만난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은 성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면서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 외에 방위산업, 스마트 팜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번 비즈니스포럼 계기에 최소 61억불(약 7조5000억원) 구

모, 24건의 MOU를 체결했다”며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MOU가 체결돼 한-UAE 간 경제협력력을 고도화하고 다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4%대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참패 우려 대출금리 하락에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상단 하락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야 하지만, 채권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대출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지면서 대출금리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달 말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03~7.43%로 전날(5.78~7.48%)와 비교해 상단이 0.05%포인트(p) 낮아졌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준거금리와 신용에 따른 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준거금리인 신규 코픽스가 전달 대비 0.05%p 내린 4.29%로 기록되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주담대 고정금리형 혼합금리(5년 고정금리+변동금리)도 연 4.34~6.28%으로 전달(4.36~7.41%)과 비교해 상단이 1.0%p가량 떨어졌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J

노란우산 홍보모델 소개합니다

사장님의 사업홍보를 도와드립니다
홍보모델 활용에 관심있는 사장님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홍보대사 **남은라**
홍보대사 **정준호**

KBIZ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 www.8899.or.kr